

축 사

오늘 이 곳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동국 100주년 기념관 준공식 및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봉안 법요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06년, 전국의 17개 사찰이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고 민족의 향학열에 부응하고자 지혜와 자비의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명진학교'를 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로 민족의 자주화와 근대화에 앞장섰고, 1919년에는 3.1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를 당하고, 2차 대전 말기에도 재차 강제 폐교 당하는 등 위기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이 힘을 모아 다시 학교를 열고, 민족교육의 맥을 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100년 역사는 우리 민족과 영고성쇠(榮枯盛衰)를 함께 해온 한국 불교가 지난 1700여년 동안 한민족의 번영을 향도해온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주캠퍼스가 자리한 이 곳 경주는 불교문화의 꽃을 피운 신라의 고도로서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어 낸 곳입니다.

경주캠퍼스는 개교 당시 교사가 없어서 지역 고등학교의 교사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캠퍼스 부지 20여 만 평, 교사 연면적 3만 6천여 평에 달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국의 건학이념과 100년 전통을 상징하는 동국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잇는 방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개관하는 이곳 동국 100주년 기념관에 김교각(金喬覺) 지장왕보살상을 봉안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성덕왕의 아들인 김교각 스님은 24세에 당나라로 건너가 출가한 후 안후이성(安徽省) 구화산에서 수행하면서 99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화된 사람들은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하였고 스님이 머물렀던 구화산은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영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의 지장왕보살상을 이곳에 봉안하는 계기로 1300년 전 중국으로 가셨던 스님의 원력과 덕화가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비추어서 한·중(韓中) 불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양국의 문화계,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이루게 되기를 발원합니다.

오늘의 준공식을 계기로 동국대학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을 계승하여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전인적 인재양성, 서로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발전해가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교 발전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밑받침 된다면 인류의 미래 백년을 행복하게 만들 인재들이 이곳에서 무수히 배출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귀한 자리가 동국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한·중(韓中) 불교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